

간나 나가시: 사철 채취

철 생산에 필요한 사철은 초기에 하천 부지에 자연적으로 퇴적된 것을 모아서 사용했습니다. 산비탈이 강이나 비로 인해 조금씩 깎이면서 철분을 다량 함유한 토사가 하류로 떠내려가 퇴적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제철에서는 이처럼 자연적인 퇴적으로 모은 사철로는 부족했습니다. 16 세기부터 17 세기에 걸쳐 이 지역에서는 ‘간나 나가시’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간나 나가시란, 다량의 토사를 물에 흘려보낸 후 사철과 모래의 무게 차이를 이용하여 사철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먼저 노출된 절벽의 표면을 조금씩 깎아 생성한 토사를 전용 수로로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토사가 평지까지 떠내려가는 중에 계단식으로 높이가 점차 낮아지는 4 개의 뜻을 지나가면서 사철을 분리했습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 가벼운 토사는 뜻과 뜻의 틈새로 흘러나왔고, 무거운 사철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가라앉은 사철을 수거한 후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 현장으로 운반했습니다.

1t 의 사철을 모으려면 200t 가량의 토사를 걸러내야 했는데, 하류로 흘러내리는 엄청난 양의 토사로 인해 농업용 수로가 막히는 바람에 논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을 총괄했던 마쓰에번은 1610년부터 1636년까지 간나 나가시를 금지했습니다. 금지령이 해제된 뒤에도 농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9월부터 3월까지만 사철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